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위한 추모 서비스 개선 연구

이정선*

목 차

요약	242. 프랑스 국립묘지
1. 서론	3. 결론
2. 본론	3.1. 헌신·훈격이 중심인 국립묘지
2.1. 선행연구 검토	지향
2.2. 국립묘지 운영 현황	3.2. 시사점
2.3. 국립묘지 운영 실태	참고문헌
2.4. 해외 사례	Abstract
2.4.1 미국 국립묘지	

요 약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묘지 설립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국가는 사적(私的)인 죽음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공적(公的)인 죽음을 구분한다. 나아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 죽음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국립묘지는 바로 그러한 공적인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간이다. 헌신과 훈격에 따른 예우로 안장 및 추모를 위한 기준이 신분 또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묘지는 예우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헌신 및 훈격 중심(重心)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의 진정한 보훈 시스템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사자와 더불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최고, 최우선 예우로 모실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 국립묘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첩경이다.

본 연구는 국립묘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추모 공간 및 역사 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으며, 국립묘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서비스 개선 중심으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국립묘지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표제어: 국립묘지, 추모 서비스, 헌신과 훈격, 국가보훈, 추모공간

접수일(2022년 8월 15일), 수정일(1차: 2022년 9월2일), 게재확정일(2022년 9월16일)

*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장례지도학과 교수, jslee@eulji.ac.kr

1. 서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이다. 국립묘지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과 국민적인 추모대상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묘지는 그 사회의 거울”이라는 명구가 회자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11개소의 국립묘지(국립현충원 2개소, 국립호국원 5개소, 민주묘지 3개소, 신암선열공원1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다. 국군묘지에서 출발한 국립묘지의 태생적인 한계는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계급 간의 차별이라는 문제 등을 지적받아 왔다. 본 연구는 국립묘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추모 공간 및 역사 공간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국립묘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국립묘지 제도 및 시설의 미비점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추모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국립묘지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2. 본론

2.1. 선행연구 검토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립묘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은 당시 국립묘지 안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분차별, 안장수급, 기능제고 등 세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국립묘지의 위상 및 기능 제고와 합리적·계속적 운

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국가원수를 제외한 모든 안장대상자의 안장 면적은 1평으로 축소하고 시설물도 통일되게 적용한다, 둘째, 유택 공간 개발을 통해 시한부 안장제를 도입하고 봉안당 건립 부지로 활용한다. 셋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묘지의 공원화, 접근 및 이동 편의 제공, 편익시설의 설치, 홍보강화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제안하였다.

『호국용사묘지 안장제도 및 설치·운영 발전방향』은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제고, 안장대상의 적정성, 수급균형 등 제도적인 측면과 시설 자체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호국용사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한 개의 독자적인 법령으로 구성하여 국립묘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국립5·18묘지 확장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는 국립5·18민주묘지의 만장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공간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변 임야를 추가 확보하여 묘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첫째, 현재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둘째,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야외공연장, 승모루, 현수기념비 등이 들어선 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안, 셋째, 유영 봉안소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승모루 및 유영봉안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2, 3안을 병행 추진하되 각 규모를 축소하여 확장하는 방안이다.

『국립묘지 발전방안』은 국립묘지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견이 처음으로 반영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국립묘지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추진목표를 “애국애족의 상징으로서의 「열린 국립묘지」 구축”으로 정하고, 온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건전한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의사자 묘지 조성문제나 안장대상 범위, 안장 배제대상, 안장대상 선정절차의 개선 등 안장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화장을 원칙으로 하는 안장방법 및 기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2. 국립묘지 운영 현황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묘지 설립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국립묘지는 1955년 국군묘지로 출범한 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새로운 성격의 국립묘지 확대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 1955년 이른바 동작동 국군묘지 1개소에서 출발한 것이 2021년 12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국립연천현충원이 개원하면(2024년 개원 예정) 모두 13개소로 운영된다. 국립묘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현충원으로 규정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등 2개소가 있으며, 국립연천현충원을 신규로 설치 중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3개소가 있다. 참전군인들이 안장되는 국립호국원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 제주호국원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립묘지로 승격된 대구광역시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독립유공자 전용 묘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립묘지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선양과 사후안장지원을 위한 묘역관리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2.3. 국립묘지 운영 실태

국립묘지에는 상징탑(현충탑), 묘역, 기념관, 각종

기념조형물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각종 시설들의 외형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선례를 답습하고 있는데, 미국의 많은 국립묘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징탑(현충탑), 묘역, 기념관, 기념조형물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묘지의 시설물은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 보다는 모든 건축물이 전통 양식을 따르다 보니 실용성 보다는 외형에 치우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국립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념 조형물들의 규모는 조형물의 그 취지와는 달리 묘역의 경관을 저해하고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고 웅장해야만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널리 오래도록 기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묘역 내에 그늘을 살릴 수 있는 식재와 그늘막과 같은 쉼터도 부족하여 참배, 휴식 및 국민교육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공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 국민이 고성능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시대에 전 시대의 유물로 국립서울현충원은 군 장비 전시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이 까다로워 관리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18민주묘지를 제외하고는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의 전시 공간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신 전시기법의 도입에 앞서 안장대상자의 영예성 강화를 위한 스토리 발굴 및 눈높이에 맞는 체험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굳이 인물을 발굴하지 않더라도 대상자의 특성이나 개성에 맞는 한층 개선되고 예술적인 감각의 다양한 묘비의 도입은 불거리 없는 국립묘지가 보다 친밀하게 느껴질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립묘지의 주요인사 묘지를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할 수도 있다. 더불어 관련 자료를 충분히 비축하여 제공하고, 국립묘지 안장자 중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료 접근성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Figure 2-1. Manguri Park Historical Figures Exhibition Hall

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역 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의미 있는 국립묘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세계 유명묘지에는 유명 인사들을 표시한 지도는 물론 소책자까지 발간하고 있으며(유료로 판매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립 망우묘지공원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 만해 한용운님 등과 같은 유명인사 안내판을 설치해 두고 있다.

2.4. 해외 사례조사

2.4.1 미국 국립묘지

미국 국립묘지 시스템을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171개소의 미국 내 묘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군인 묘지 설립의 근거는 미국 남북전쟁(the American Civil War) 중인 1862년 7월 17일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인데, 그해 말까지 14곳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었다.

보통 국립묘지는 군인 묘지여서 미국 군인 전사자, 제대군인(Veterans) 및 그 배우자를 안장하는 곳이지만,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국립묘지는 워싱턴 D.C 외곽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이다. 특히 알링턴에는 중요한 민간 지도자와 기타 중요한 국가 인물의 묘소도 있다. 일부 국립묘지에는 남북전쟁 시기 남부동맹 군인을 위한

묘역도 있고, 그 밖에 州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한 향군묘지(state veteran cemeteries)도 있다.

미국 제대군인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의 국립묘지 관리청(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NCA)은 155개의 국립묘지(2021.8.10. 현재)와 미국 퇴역군인의 매장 위치를 찾는 데 사용하는 전국묘지위치검색(Nationwide Gravesite Locator)을 유지 관리한다.

육군성에서는 알링턴 국립묘지와 United States Soldiers' and Airmen's Home National Cemetery(註. 워싱턴 DC 소재)를 관리하고, 내무성(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국립공원관리단(The National Park Service, NPS)에서는 사적(史跡, historic sites) 및 전장(戰場, battlefields)과 관련된 14개소의 국립묘지를 관리한다.

미국전쟁기념비위원회(The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ABMC)라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미국 밖에 있는 26개소의 미군 묘지 및 다른 기념비를 관리한다.

우리나라 양대 현충원 및 호국원에서 거행하는 가장 큰 행사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으로, 추념식이 거행되는 장소는 현충 및 충혼탑 앞에 마련된 광장이다. 그리고 안장대상자의 안장 의식은 대체로 一日(또는 수시) 현충관의 큰 강당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고 안장공간으로 이동하여 유골을 안장한다.

이에 비해(주로) 사진으로 확인한 미국 국립묘지의 대규모 행사는 큰 성조기를 중심으로 한 Flag Plaza(area) 또는 Assembly area에서 거행한다. 그리고 안장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는 묘지마다 여러 개소씩 분산 마련되어 있는 Committal Shelter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2000년 이후 미국 국립묘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화장률 증가에 따라 봉안담(columbarium niches)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Figure-2-2. Cape Canaveral National Cemetery Memorial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봉안담 확대 건립이고, LA 국립묘지는 2019년 도로 건너편에 확장한 공간 전부가 봉안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유명한 하와이의 국립묘지 National Memorial Cemetery of the Pacific에는 2017년에 예전 안내센터를 밖으로 옮기고 비교적 큰 규모의 봉안담 섹터를 조성했다.



Figure 2-3. Newly built Bongandam area of LA National Cemetery

2000년 이후에 신설된 모든 국립묘지에는 그 규모에 걸맞은 크기의 봉안담을 설치하여 두고 있는데, 비교적 큰 봉안담 섹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갖도록 전용 안장의식 공간 Committal Shelter까지 마련된 곳도 꽤 눈에 띈다.

2.4.2. 프랑스 국립묘지

프랑스 최고의 국립묘지인 파리 뵘뎀옹(Panthéon)은 국립기념물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에서 관리한다. «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 “위대한 이들에게 조국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라는 슬로건답게 프랑스 국민이면 누구나 이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안장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사망한 후 시간이 지나 철저한 평가를 거쳐 국가적인 안장 행사를 거행하고 지하무덤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군사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앙발리드(Hôtel des Invalides) 지하에 묘소가 있다. 나폴레옹의 아들과 형제 등 일부 가족과 측근 군인을 비롯해 프랑스의 전쟁 영웅들이 이 지하 묘소에 안장되어 있다.

또 독일 점령기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 희생된 인사들의 추모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 262개소와 각 지방의 유서 깊은 공설묘지에 그 지역 출신 전사 장병들이 잠든 많은 수의 묘역이 별도로 구획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국립묘지 관련한 제도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기부터 200년 이상의 논쟁과 변



Figure 2-4. Inside the French National Cemetery, Panthéon

화를 거쳐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를 줄여서 소개하면, 대상별 안장 공간의 별도 구성 그리고 전사자 묘지의 국가 차원의 항구 추앙이라고 보면 된다. 뵘뎀옹은 1) 사후에 충분한 검증과 평가 기간을 거쳐 안장된다는 전통을 가진 곳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2) 이곳이 프랑스 최고의 국립묘지라는 점이다. 또 그 격에 걸맞은 3) 신전같이 웅장한 건축물 안에 4) 최고의 예우를 갖춰 안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마치 고대 신전 같은 빵때웅의 명성은 파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끈다.

3. 결론

3.1. 헌신·훈격이 중심인 국립묘지 지향(志向)

국가는 사적(私的)인 죽음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공적(公的)인 죽음을 구분한다. 나아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 죽음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국립묘지는 바로 그러한 공적인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간이다. 국립묘지에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또는 국가가 그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묻혀 있다.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1950년대에 태동하여, 1960년대에 본격 운영된 국군묘지에서 출발하였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가 원수와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을 받아들여 오늘에 이르렀다. 길지 않은 역사로 인해 미숙함과 군사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계급에 따른 차별 등의 문제,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및 한국전쟁의 후유증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국가유공자, 장군, 장교, 사병이라는 5단계의 강고한 위계 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안장 면적, 묘석 크기는 물론 안장 방법도 ‘시신 매장’ 과 화장한 ‘유골 안장’ 이라는 ‘큰 차별’ 을 하였다. 헌신과 훈격에 따른 예우로 안장 및 추모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계급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 공적인 죽음과 사적인 죽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공적인 죽음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신분 또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묘지는 예우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헌신 및 훈격 중심(重心)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의 진정한 보훈 시스템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사자와 더불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최고, 최우선 예우로 모실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 국립묘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첩경이다.

또 하나, 근래 우리 국립묘지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현충원 및 대전현충원의 기본 시설이었던 봉안묘와 독립유공자 묘역 등 많은 공간의 사용이 완료되었다. 우리 전통적인 매장관습 또는 이와 유사했던 국립묘지의 봉안묘는 예전에 기피했던 화장장법(火葬葬法)도 받아들여지게 했다. 국립묘지 주축의 장지 사용 종료는 여러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물론 다수 안장대상자들은 봉안당 중심의 장례 관행의 정착이라는 사회변화에 따라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와 전사자 등 높은 헌신을 한 분들은 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국립묘지 봉안묘역은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국민과 접해왔기 때문이다. 봉안당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홀대받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가 아니다. 공적인 죽음인 전사·순국 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의례는 참여자의 도덕적 감수성을 통해 사회공동체 내에서 올바른 행위는 무엇이며, 장례 서비스는 시대적 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와 문화적 정착에 역할을 담당한다.

3.2. 시사점

공적인 죽음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묘의 넓이나 비석의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추념은 가슴속에서 우러나야 한다.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화장한 유골을 굳이 큰 묘소

를 조성하여 안장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나라 화장률은 90%를 지나 100%에 도달하는 것이 멀지 않다고 본다. 종전 안장 방식의 구분이나 크기에 의존하던 걸치레 예우방식을 언제까지나 이어갈 수는 없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면 연구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용 가능하면서도 품위 있는 새로운 봉안묘는 한 두명의 연구자의 머리에서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공적인 죽음이 예우 받는 국립묘지 안장 공간의 전환을 기대한다. 미래지향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헌신·훈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 하신 독립유공자들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최고의 예우를 바칠 때가 되었다.

References

- [1]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Remembrance Shedding Activities Using National Cemetery in Daejeon National Cemetery - Focusing on Daejeon National Cemetery, 2013.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묘지를 활용한 현충선양활동 발전방안 연구 - 국립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2013)
- [2] Kim, Joo Hwan (2015), An Analysis of National Identity in terms of Reward for Patriots: Focused on conflict cases among the elements of national ident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14(2), pp. 39-69. (김주환, 보훈이념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훈연구, 서비스연구의 프레임워크 제안, 서비스연구, 제14권 제2호, pp. 39-69).
- [3] Korean funeral culture reform national council(2001), 『foreign funeral culture and policies. ((사)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외국의 장묘문화와 정책』, 2001).
- [4] Korean Cultural Strategy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Korean Modernization Plan of the National Cemetery of the National Cemetery』, 2007. (한국문화전략연구소 『국립묘지 국가의전의 한국적 현대화 방안 연구』, 2007)
- [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for national cemeteries. 11-1180000-000407-14 (국가보훈처(2022.1.21),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수립 연구. 11-1180000-000407-14).
- [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Cemetery Operation Status and Development Plan』, 2000 (국방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묘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2000)
- [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orea 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Feasibility Study of Additional Creation of Patriotic Center in Central Area』, 2007. (국가보훈처,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중부권 호국원 추가 조성 타당성 연구』, 2007)
- [8]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ational Council for the Reform of Korean Funeral Culture,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expanding the National 5.18 Democracy Cemetery and the National Yeongcheon National Security Service』, 2007 (국가보훈처, (사)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국립 5.18민주묘지 및 국립영천 호국원 확장 타당성 등 연구』, 2007)
- [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Burial System and Direc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Cemetery of the Patriots』, 2002.(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국용사묘지 안장제도 및 설치·운영 발전방향』, 2002)
- [10] National Cemetery Development Committee (2004),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National Cemetery Development Plan』, (국립묘지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립묘지 발전방안, 2004).
- [1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website (미국 제대 군인부 홈페이지)
<https://www.cem.va.gov>
- [12] Yun, Jae-Wang (2005), French Veterans System, Seoul: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and Veterans Affairs. (윤재왕, 프랑스의 보훈제도, 서울: 국가보훈처, 2005.)

Lee, JeungSun(jslee@eulji.ac.kr)



Lee, Jeungsu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Mortuary Science Department at Eulji University in Seongnam. She received her Ph.D. in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She holds a Master's and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Texas A&M University at San Antonio, Texa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reas in Service Philosophy, Service Innovation, as well as Funeral Service and Mortuary Science.

Improvement of memorial service for national cemetery development plan

Lee, Jeungsun*

ABSTRACT

The National Cemetery is a space for realizing patriotism at the national level to honor the will of those who gave their lives for the country and to permanently venerate their loyalty and merit.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metery is to imitate the spirit of patriotism that was sacrificed for the country and people. The state distinguishes between private death and public death as a sacrifice for the state. Furthermore, we carefully manage deaths that are classified as public. National cemeteries are the institutional space for managing such public deaths. With respect for devotion and discipline, the standards for burial and commemoration should not be based on status or class. In a national cemetery, shifting the degree of courtesy and priorities to devotion and discipline will become a true patriotism system in a democratic society. First of all, it is time to honor those who have died and those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highest and highest priority. This is the key to resolving the conflict that our national cemetery is experiencing and gaining public sympathy.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national cemetery is insufficient as an open memorial space and historical space loved by the people.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and applicability of national cemeteries are review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excellent cases and high-quality and eco-friendly national cemetery construction cases in advanced countries.

Keywords: National Cemetery, Remembrance Service, Dedication and Discipline, National Veterans Affairs, Memorial Space

* Eulji University, College of Health Industry, Mortuary Science Department, jslee@eulji.ac.kr